

Global Asset Talk

얽박한 노력이라도 시작이 반이다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신중론 vs 긍정론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은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신중론과 긍정론 사이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및 신흥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주식자산군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전주대비 0.06% 하락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얽박한 노력이라도 무역협약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미중간에 추진중인 1단계 무역협약에 대해 "구조적인 쟁점은 건드리지 않고 무역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우스꽝스러운 노력"이라며,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익주의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침체국면 초입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는 이러한 얽박한 노력이라도 아쉽다. 특히, 지난 3분기 미국경제는 장단기금리차 역전을 동반하는 체감경기 전반의 급격한 위축이 나타났고, 경기선행지수는 오는 4분기 이후 성장 부진이 본격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9월 이후 양국간의 참여한 대립은 무더지고 11월 말 현재에는 1단계 무역협약의 서명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PMI(10월 49.8)는 기준선인 5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대선 여론조사 역시 지난 10월까지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었으나, 11월 들어서는 양국의 스몰딜 기대감과 함께 여론이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 결과 및 내용에 따라 방향성과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연내 1단계 합의가 가능하다면, 큰 틀에서 내년 미 대선까지 경기 회복을 위한 휴지기 국면이 이어질 개연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하나금융투자의 전망이다.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



Economist/자산배분 나중역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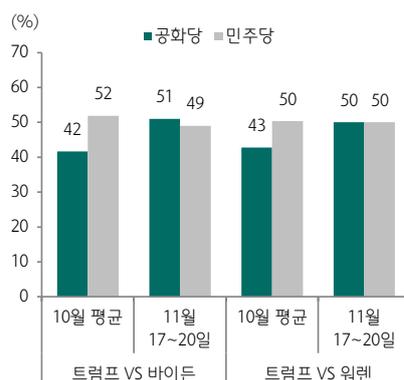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업실적 개선에 우호적으로 선화하는 체감경기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무역협약의 기대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중



자료: Realpolitics, 하나금융투자

표 1.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자산그룹(BM)	11월 비중	자산군	11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4.4%	국내	13.70%	KOSPI	-1.49%		
		선진국	18.70%	MSCI WL	0.46%	0.38%	-0.32%
		신흥국	12.00%	MSCI EM	-0.21%		
국채 (JPM GBI BI)	36.0%	국내	16.60%	국채+통안채(자체합성)	0.66%		
		선진국	11.80%	JPM 글로벌 채권지수	-0.16%	-0.16%	0.14%
		신흥국	7.60%	JPM 이머징 채권지수	-0.54%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1.1%	국내	4.60%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26%		
		투자등급	4.30%	바클레이즈 글로벌 IG 회사채	-0.03%	-0.03%	0.09%
		하이일드	2.20%	바클레이즈 글로벌 HY 회사채	-0.02%		
대체투자 (S&P GSCI TR)	3.5%	원자재	1.60%	S&P GSCI TR	2.52%		
		리츠	1.90%	FTSE REITs	-1.11%	2.52%	0.55%
유동성(Cash Index)	5.0%	유동성	5.00%	KRW Cash Index	0.02%	0.02%	0.02%
주간수익률						0.20%	-0.06%
연초대비 누적 수익률						11.97%	8.87%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자산배분 전략에 활용해 볼 수 있는 ETF

종목코드	설명	최근 NAV 흐름
IVV	<p>iShares Core S&P 500 E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대형주 ETF’ S&P500 종목들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며 보수율 0.04%로 동종 ETF 중 가장 저렴. SPY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 글로벌 경기 우려 등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나 유동성 모멘텀 유효한 가운데 위험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증시 투자 권고 	
IEF	<p>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중기 국채 ETF’ 만기가 7-10년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듀레이션은 약 7.5년. 보수율은 0.15%로 다소 높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추적오차 제공 연준의 추가 부양 정책을 기대하는 시장 스탠스. 미국 국채는 단기적으로 매력도 유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시장 인식 변화를 주시할 필요 	
MCHI	<p>iShares MSCI China E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CI China 지수를 추종하는 ‘중국 주식 ETF’ 중국 본토, 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 IT와 금융 업종 비중이 각각 38%와 28%로 매우 높은 편이며 풍부한 유동성 제공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준율과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반등 예상.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 	
VNQ	<p>Vanguard Real Estate E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탈 로이터 미국 주거용&상업용 리츠 인덱스를 추종하는 ‘미국 리츠 ETF’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넓은 익스포처를 가지며 규모가 커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며 보수율이 매우 낮음. 배당률은 4.05% 수준으로 양호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며 부동산시장 하단이 지지되는 가운데, 양호한 배당수익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 기록하는 리츠 투자 추천 	